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103위 성인

### 성녀 박봉손 막달레나 (1796-1839)

서울에서 태어난 박봉손은 15세 즈음 시골로 출가하였다. 거기서 딸 하나를 두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를 차례로 여윈 뒤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다. 이후, 계모 김 체칠리아의 권고와 가르침으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친정에는 여러 교우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 늘 번잡하였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궂은일과 천한 일을 도맡아 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박봉손은 외삼촌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형관에게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여기까지 온 것이니 국법대로 죽여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마침내 그해 9월 26일,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44세였다.

성화\_이정태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 연중 제32주일 · 평신도 주일

**입당송**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지혜 6,12-16

**화답송** 시편 63(62),2,3-4,5-6,7-8(◎2c 참조)

-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2독서** 1테살 4,13-18〈또는 4,13-14〉

**복음 환호송** 마태 24,42.44 참조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마태 25,1-13

**영성체송**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소리 주보 ▶



## 하렘\* 으로 들어간 에스테르



도금양나무



에스테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아랍인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아랍 여인들은 대개 히잡(Hijab)을 쓰지만 가끔 부르카(Burqa)를 입기도 합니다. 부르카는 눈만 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의복입니다. 부르카로 외부와 차단한 여인이나 둘째, 셋째 부인으로 시집가는 처녀를 볼 때면(모슬렘 사회에서는 처를 넷까지 둘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임금의 하렘으로 들어간 에스테르가 생각나곤 합니다.

에스 1장에 따르면, 에스테르가 궁으로 가게 된 계기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비(妃) 와스티가 폐위된 사건이었습니다. 연회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임금이 왕비의 미모를 사랑하려고 그를 불러냈는데, 기생처럼 여러 대신들 앞에 서게 된다는 굴욕감 때문이었는지 와스티가 그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와스티는 폐위당하고, 왕실은 새 왕비 간택을 위해 전국에서 처녀들을 소집합니다. 이때 유대인 유배자 모르도카이의 사촌 에스테르도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2,6-8).

에스테르의 본 이름은 도금양나무(하다쓰)를 뜻하는 “하다싸”(2,7)입니다. 도금양나무(이사 55,13; 즈카 1,8)는 평화와 축복을 상징하는 늘푸른 관목입니다. 에스테르는 현 지식으로 개명한 이름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여신 ‘이쉬타르’나 별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스타라’에서 딴 것으로 보입니다. 탈무드(메길라 13ㄱ)에서는 ‘감추다’라는 뜻의 히브리 어근 ‘사타르’와 연결하는데요, 에스테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에스 2,10).

에스테르가 왕비가 된 시기와 거의 맞물려 궁에서는 하만이라는 자가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3,1)

으로 소개되는데, 공교롭게도 아각은 사울의 몰락에 원인인 아말렉 임금의 이름입니다(1사무 15,19-22). 말하자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모르도카이는 사울처럼 벤야민 지파 사람이구요(에스 2,5). 그렇다면 임금을 뺀 모두가 하만에게 절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 모르도카이만 이를 거부한 이유(3,2)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미완으로 끝낸 숙적 아말렉과의 전투가 재현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모르도카이 때문에 유대인을 섬멸하려는 계획을 세우자(3,6), 모르도카이는 내시 하탁을 통해 왕비 에스테르와 비밀리에 소통합니다(4,5-17). 에스테르는 궁리 끝에 하만과 임금만 연회에 초대하는 방법으로 하만의 허영심을 부풀립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연회에서 돌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하만이 자신과 유대 민족을 죽이려 한다고 임금 앞에서 고발합니다(7장).

이렇게 하여 에스테르는 극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고 이야기는 희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처녀가 왕비로 뽑혔더라면 에스테르는 하렘에서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테르는 평화와 축복의 상징, 도금양나무였습니다. 왕비가 된 다음 처음에는 소심하고 여렸지만(4,11-14), 그는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민족을 구함으로써 성모님의 예표 구실을 한 구약의 여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

\* 일부다처제 사회의 한 가정에 속한 여인들이 자식들과 함께 거처하는 곳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暗雲)들」 ⑨

-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의 부재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과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사회생활에서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 품위 있는 생활의 기회를 찾으면서도(인간의 존엄) 그 사회생활을 통해 자기완성을 좀 더 쉽고 충실하게 도모하는(공동선), 보편적 형제애의 세계를 향한 길은 인간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기쁨과 희망」 제1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

회칙 「모든 형제들」은 정치·경제의 영역뿐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도 보편적 형제애의 증진을 가로막는 오늘날의 추세를 성찰합니다. 특히 현대 세계가 천박(淺薄)의 문화, 단견(短見)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런 문화가 공유(共有)의 선견(先見)을 앗아간다고 우려합니다(17항). 참고로, 천박은 “학문이나 생각 따위가 얕음”을 가리키고, 단견은 “짧은 생각이나 의견”을 뜻합니다. 선견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앎”을 의미하며,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의 이상(理想)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을 말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우선 회칙은 인간 자유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우리의 행동 양식과 생활양식을 끝없는 소비와 공허한 개인주의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13항).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일종의 내다 버리는 세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진단합니다(18-21항). 제목만 보면 “식량이나 없어도 될 물건들”을 내다 버리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노인, 젊은이 그리고 가족 같은 다른 사람들을 내다 버리는 세계를 말합니다(19항). 빈곤의 확대를 불러오는 노동비용 감축에 대한 집착이나 인종차별 같은 악한 태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내다 버리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20항).

“우리 인간 가족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태평한 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더는 보살핌과 존중을 받아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장애가 있으며 -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 당장은 유용하지 않거나 - 노인들처럼 - 더는 필요 없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18항).

문화의 천박함과 고상함, 단견과 선견지명을 식별하는 기준은, 무한 소비나 개인적 사리(私利)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행동·생활양식의 유무입니다. ☸

## 등잔의 심지를 다듬고 밝게 불태우십시오

〈Keep Your Lamps Trimmed and Burning〉

“등잔의 심지를 다듬고 밝게 불태우십시오  
등잔의 심지를 다듬고 밝게 불태우십시오  
등잔의 심지를 다듬고 밝게 불태우십시오  
그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통 아프리카계 아메리카인의 영가

하느님 안의 형제 자매인 우리는 물로 씻는 예식인 세례성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를 위해, 그리고 모든 이와 그들의 속죄를 위해 바치는 희생제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가장 참다운 봉헌이자 제사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우리는 매주 성당에 모여 친교를 이루며 복음과 강론을 듣고 성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인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성직자와 더불어 주님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 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맞갖은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 준다”(지혜 6,15-16).

주변에 아직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이들을 볼 때면 지난 전염병의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뿐 아니라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조류 독감 같은 새로운 전염병은 몇 해가 멀다 하며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2000년대 지카, 에볼라, 소아마비 등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다섯 차례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며 언제나 깨어 등잔에 불을 밝히는 우리는 기후 위기처럼 앞으로 더욱 거세게 다가올 큰 시련과 고난들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과 자비, 인내와 위로, 지혜로써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험난한 여정을 위한 발걸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첫째 가는 계명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2코린 13,11-13). 🌸

“Sisters, don't grow weary,  
Brothers, don't grow weary,  
Children, don't grow weary,  
For the time is drawing nigh.  
Keep your lamps trimmed and burning.”







교구장 동정

12(주일) 견진성사 - 광릉 성당

13(월)~22(수) 제25회 한일주교교류모임 - 도쿄 / 일본 선교사제 만남 - 요코하마

이번 주 11/12(주일)~18(토) : 마르 16,1-11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성경 읽기 이 구절을 한 주간 반복해서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11/25(토) 한 달간 읽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2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11/15(수) 10시

장소 오남 성당

교구 소식

중등부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19(주일) 14시

장소 각 지구별

오염된 바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시국미사

일시 11/13(월) 19시 (목주기도와 미사)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전시] 황명숙 마리아 개인전

자연과 함께 세월을 물들이다

일시 11/4(토)~17(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갤러리평화

의정부교구청 사제숙소 비안네의 집 직원 모집

인원 여 0명 (60세 이하)

모집 미화 및 주방 업무

마감 채용시까지

시간 주말근무 포함 (주 40시간)

접수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3층 관리국

근무처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04-16 비안네의 집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격증사본

문의 031-850-1426 관리국

제8기 한국교회사 강학회 수강생 모집

한국교회의 시적인 천진암 강학회를 기억하며, 한국교회사 강의 및 그룹 토의

일시 12/2(토), 3(주일) 09:30~17:30

장소 황사영 순교 순례지 교육관 2층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70)

인원 선착순 40명

회비 6만원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미사 · 피정 ▶▶**

**이해인 수녀 대립 특강 - 호평동 성당**

주제: 사랑의 작은 길, 일상의 순례자  
일시: 12/10(주일) 교중미사 후 11:30  
장소: 호평동 성당 / 문의: 031-592-2554

**의정부교구 형제들의 주말피정**

일시: 11/18(토) 09:30~16:40  
장소: 가능동 봉사회 교육관  
주제: 말씀과 성체의 영  
강사: 신기배 사도요한 신부  
미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  
회비: 2만원 / 문의: 010-9008-1796

**다락방 피정**

초기교회공동체 체험을 통한 하느님 현존 체험 피정  
일시: 12/8(금)~9(토)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12/3(주일)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한마음 기도영성학교 초급 7기**

렉시오비나 묵상기도와 이나시오 관상기도 배움터  
일시: 12/15(금)~17(주일)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접수: 12/3(주일)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해맞이 피정 - 성베네딕도 왜관수도원**

일시: 12/30(토) 16시 ~ 1/1(월) 13시  
장소: 왜관 피정의 집  
참가비: 25만원 (접수 후 입금)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기도회**

일시: 11/17(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성령 안에서 보물 찾기  
강사: 박규식 신부  
문의: 010-2127-0032

**2024 살레시오 겨울성소피정**

날짜: 1/19(금)~21(주일)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 신청: 12/31(주일)까지  
문의: 010-6221-3520 살레시오회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8(금)~16(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II:  
12/27(수)~29(금)  
문의: 010-3340-0201 흥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맹진학 라파엘 신부 /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故 차동업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기일 미사**

일시: 11/12(주일) 14시  
장소: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교육 · 모집 ▶▶**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2023년 정기 학술 세미나**

일시: 11/18(토) 14시  
장소: 수원교구청 2층 강당  
주제: 생의 말기의 쟁점과 과제  
문의: 02-460-7623, www.cbck.or.kr 참조

**신곡2동성당 하늘의문 봉안당 직원 모집**

대상: 세례 받은 교우 / 모집: 1명(계약직)  
업무: 봉안업무, 시설관리 등  
접수: 11/17(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상담원 모집**

모집: 생활지도사 1명 (3교대)  
(청소년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우대)  
문의: 031-826-7977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요셉의원 직원 모집 - 서울 영등포 소재**

대상: 치위생사, 치과 전담 간호사(간호조무사)  
인원: 2명 (파트타임 지원 가능)  
문의: 02-2634-1760 요셉의원  
※ 홈페이지 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미국 LA영어캠프(3주, 1/10~30): 디즈니랜드,  
UC버클리+스탠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4주, 1/10~2/3):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문의: 02-734-0999, cpbccamp.com

**2024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접수: 11/13(월)~2/16(금)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교회음악대학원 2024 전기2차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작곡포함),  
합창 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12/4(월)~15(금) / 전형일: 1/5(금)  
문의: 02-740-9704, songsin.catholic.ac.kr/music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성가 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음악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or.kr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남녀 평신도  
접수: 11/30(목)까지  
문의: 010-5399-3371, 010-9572-8282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입학 안내**

입학설명회: 11/25(토) 14시 / 대상: 현 초6  
겨울진학캠프: 1/13(토)~14(주일)  
문의: 054-338-0530  
※ 전학 관련 사항은 교무실 문의 바랍니다.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4 모집**

접수기간: 11/16(목)~23(목)  
모집학과: 조형예술학과, 그리스도교미술학과,  
디자인콘텐츠학과, 간호학과  
전형방법: 포트폴리오, 면접, 연구계획서  
입학문의: 032-830-7022~3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접수: 11/1(수)~24(금) / 3개월 수업(12월~2월)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 성악·합창지휘·작곡·  
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그레고리오성가·성악(남,여)·플루트·  
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장소: 최양업홀(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 www.casm.co.kr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12/16(토), 파티마 평화의 성당  
대상: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010-2607-6324, 010-8719-9900

안내 · 기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 야간진료 (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의정부 바오로딸 서원 휴무일 변경 공지**

휴무일 변경: 토, 첫주일, 공휴일 ▶ 주일, 공휴일 교구청 1층에 위치한 의정부 바오로딸 서원이 11/18(토)부터 토요일은 열고, 주일은 쉽니다. 문의: 031-875-7004 바오로딸 서원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11/21(화)~23(목), 11/26(주일)~28(화) 12/1(금)~3(주일), 12/9(토)~11(월) 12/15(금)~17(주일) 연말연시: 12/29(금)~1/1(월) 눈꽃산행 문의: 064-756-6009, 02-773-1463

**가톨릭여행사 성지순례**

1/22(월) 베트남 성모님 발현지 5일 1/26(금) 일본(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2/15(목)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2/19(월) 체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1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여행사 www.catholictravel.co.kr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1/1(월)~9(화) 이스라엘 (8박 9일, 475만원) 6/7(금)~15(토) 이스라엘 (8박 9일, 465만원) 문의: 010-7374-3217

**야곱 전국 성지순례**

원주, 춘천교구: 11/24(금)~25(토) 성내동, 목호 행정공소 외 대구대교구: 12/1(금)~2(토) 구룡공소와 경주관아 문의: 010-3712-8119

**가톨릭신문사 신입 직원 모집**

분야: 취재 기자, 광고 홍보 사원 접수: 11/30(목)까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catholictimes.org 참조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날짜: 11/17(금)~20(월), 12/1(금)~4(월) 1/5(금)~8(월), 1/26(금)~29(월)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4년 하반기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이시돌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12/8(금)~10(주일), 12/16(토)~18(월) 연말연시: 12/30(토)~1/2(화) 해남이, 해돋이 눈꽃산행: 1/6(토)~8(월), 1/12(금)~14(주일) 1/19(금)~21(주일), 1/27(토)~29(월)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20(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35만원) 3/14(목) 프랑스 성모성지 및 수도원 순례(13일 560만원) 3/15(금) 이스라엘, 요르단(12일 550만원 KE) 4/10(수)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13일 520만원 KE) 5/15(수)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3일 560만원 KE)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라파엘 해외성지순례**

1/14(주일) 다낭 성지순례, 149만원 3/18(월) 알프스와 중세 수도원, 519만원 4/5(금) 프랑스 성모성지순례, 52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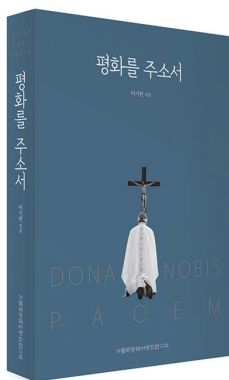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출발: 4/7(주일) 549만원(+1,900유로) 가톨릭 트래블-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가톨릭여행사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10시~16시(월~금)

DIocese of Uijeongbu



신/간/소/개

한반도 평화 사목의 기록

**평화를 주소서**

저자 이기헌 | 362면 | 18,000원 | 문의 031-850-1502 민족화해위원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활동은 내 평생의 소명이었습니다.”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주교가 그동안 써 온 평화 순례기와 메시지를 모은 책이다. 평양의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 평양교구 신학생으로 입학한 이 주교는 북에서 건너오지 못한 누나 둘과 헤어진 이산가족의 아픔도 품고 있다. 사제가 된 후 중국, 사할린, 북한 순례와 일본 교포사목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화에 시선을 두는 일들을 이어왔다. 주교가 되어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것도 평화의 도구로 쓰시려는 하느님의 섭리였음을 돌아본다. 평화가 더욱 소중해진 오늘날, 이 주교는 평화야말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고귀한 선물을 깨닫는다고 고백한다.

※ 수익금 전액은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의 발전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 제1회기 폐막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 제1회기가 지난 10월 29일(주일)에 폐막하였습니다. 10월 4일(수)부터 회의에 참여한 365명의 대의원들은 폐막을 앞둔 10월 28일에 종합 보고서(Synthesis Report)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엔 2021년부터 교구와 국가, 지역의 경청모임에서 다뤄진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종합 보고서는 20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는 '수렴할 사항' '고려할 점' '제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총 80개 이상의 제안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시노달리타스의 신학적·교회법적 정립   ▶ 여성과 평신도의 역할   ▶ 기후와 생태 환경
- ▶ 평화   ▶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 토착화   ▶ 새로운 예비신자 사목   ▶ 교회의 분권
- ▶ 추기경단 역할 강화와 교황의 사목 지원   ▶ 성직주의   ▶ 사제 독신제   ▶ 사제 성추행
- ▶ 성 소수자   ▶ 이주민과 난민   ▶ 디지털 사목 지원 등



이번 시노드에선 여러 첨예한 주제들이 담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중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특히 여성 부제 서품 가능성에 관해서 "교회의 전통을 깨는 것"이라는 의견과 "신약성경을 포함해 초대교회의 관행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했습니다. 다만, 여성이 교회 의사 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과 장애인, 성 소

수자, 교회 밖에서 혼인한 신자들과 같이, 본당 생활에서 소외된 이들을 환대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사와 축복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노드에서는 담대한 논의가 보장되고 권고됐던 만큼, 그에 대한 거부 반응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과 교회의 관계를 성찰했고, 이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폐막 미사에서 "오늘 온전한 열매를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 우리 앞에 펼쳐진 지평을 바라보자."라고 당부하며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이나 인간적인 계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내년 10월에 열리는 제2회기에도 참가하며, 이때 최종 건의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행 주 성 당</h1>  <p>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중미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화,수,목,금
sd.uca.or.kr/hjsd1909	홈 페이지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後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 평신도 주일 강론

토요일 오후 5시 미사: 구미경(리베라따)

주일 오전 9시: 최성권(야고보)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오정화(아네스)

▣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중 미사 예물 봉헌

11월 12일	배성은(소사아가다), 구미경(리베라따)
11월 19일	권우석(라파엘), 정윤정(라파엘라)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17일 (엘리사벳): 김영순, 김유미

**전례**

▣ 12월 성시간

일 시: 12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 12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 전대사 미사

일 시: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는 행주 성당에서 미사 참석을 하시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당공지**

▣ 12월 봉성체

일 시: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자동 심장 충격기 구매

본당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구매하여 본당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심장 충격기 구매를 후원하여 주실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선, 류일영, 이용우, 김수애, 익명의 분들이 1,230,000원을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0월30일 ~ 11월05일)**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2건	70,000원
주 일 헌 금		1,208,000원

▣ 감사헌금

이병수	20,000원	유현경	10,000원
-----	---------	-----	---------